

## 제22회 한·일·대 3국 자매회의 열려

12월 5일부터 이틀 동안 미야자키시, 일본농약공업회 주최로

**이** 해로 제22회를 맞는 한·일·대 3국 자매회의가 지난 12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미야자키 Sheraton Grande Ocean 리조트에서 열렸다.

일본농약공업회(JCPA)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3국자매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주제로, 3국 자매회의 형태는 현행의 틀을 유지하고 향후 자매회의 개최국 협회는 자국사정에 따라 자매회의 명칭을 활용, 리셉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참가자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3국 협회의 현안 발표에서는 JCPA의 K.OKUTOMI씨가 "JMAFF의 IPM 추진 현황"에 대해, TCPIA의 Y. K. Chang씨가 "대만의 농약잔류 시스템"에 대해, KCPA의



신젠타 김용환 상무가 "한국의 생물농약 현황과 GHS"에 대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모두 14명의 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염병만 회장과 최운홍 전무이사 등 4명의 업계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차기 제23회 3국자매회의는 한국 작물보호협회 주최로 오는 10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 「2007농약안전사용교육」 실시 1월초부터 3월까지, 농업인·농약담당공직자· 농약판매업관리자 대상

적정 농약사용 유도도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농약안전사용으로 농업인의 건강보호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2007농약안전사용교육」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2007새해영농설계교육계획에 의거, 농촌진흥청장 주관하에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은 1~2월 중 실시한다.

또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되는 시·도단위 「공직자교육」은 농진청 및 농과원, 농관원

관계관이 일정별로 순회하며 교육하게 되는데 농약등록·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 농약사용과 안전농산물 생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조사에 관해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각 시·군단위 농약업무담당공직자 대상 교육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된다.

한편 농약판매업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농약판매업관리자 소양교육」은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도지사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농협농약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농협농약판매업관리자교육」은 동 교육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하여 농협중앙회 주관, 각 시·도 지역본부 협조로 실시된다.

## 한국작물보호協, 희망 담은 「2007 신년인사회」 개최

시 난해 창립 33주년을 맞아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廉炳晩)가 지난 1월 4일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기약하는 「2007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업계 및 대학교수, 언론사,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농림부 조원량 과장, 농촌진흥청 김인식 청장, 한국농약과학회장인 농업과학기술원 류갑희 농산물 안전성부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이사, 서울대 부경생 교수 및 이문한 교수, 충남대 이규승 교수, 농약판매협회 정원호 회장, 경농 이병만 부회장, 동부한농 차동천 농업부문사장, 바이엘 심재영 부사장, 성보화학 박연일 상무, 신진타 정진근 전무, 영일케미컬 김용구 사장, 에스엠비티 김인수 회장, 한국삼공 송용운 부사장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염병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록 90년대 후반이후부터 만능인 양 친환경농업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이지만 농약의 힘은 여전히 농업인에게는 천군만마이며, 어떤 농업자재보다도 우수한 일당백의 일꾼”이라면서 “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만이 도심지 소비자는 물론 언론, 소비자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노릇돌이며 최상의 방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업계의 단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 경농, 「2006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캠페인」 성황리 마감



(주)경농(대표 이병만)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별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보급과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한 「2006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캠페인」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수많은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 캠페인은, 지난해에도 전국 각 지점을 중심으로 실시된 행사에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 교육을 중심으로 각종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높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우수영농수기 모집’에서도 전국의 많은 작목반과 개별농민 4,000여명의 참여가 이루어져 그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 동방아그로, 불우 저소득 가정에 장학금 전달

**(주)동방** 아그로(대표이사 염병만)가 지난해 말 사회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에 동참, 불우이웃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소득 불우 가정을 돕기로 했다.

동방아그로는 이의 일환으로 관악구청을 통해 남현동내 독거노인 난방비 및 저소득층 의료비·초중고 도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62가정에 모두 55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성실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두 불우 저소득 모자(母子)가정의 학생과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후원금은 2007년부터 관악구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한 가정 당 분기에 1백만원씩 연간 8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추후 여직원 모임과 관리본부 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 학생들의 근황을 살피는 등 고충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경농측은 “올해의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 캠페인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설계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작물의 재배생리를 기본으로 수준 높은 농가경영컨설팅을 실시해 농민들의 재배지식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우수 영농수기 농가 해외(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 견학 모습.

### 경농, 창립 50주년 기념 엠블럼 제작



농업인을 위한 오직 한 길만을 고집해 온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에 경농은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지난 50년을 기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아 표현하는 홍보용 엠블럼을 제작, 활용하기로 하고 당해년도에 제작하는 일체의 광고 및 홍보물에 신규 엠블럼을 삽입키로 했다.

숫자 50을 이용하여 만든 엠블럼의 의미에 대해 경농측은 “숫자 5는 끝부분의 작물 이미지와 함께 푸른 환경을 창조하는 기업의 의미를 담아 녹색으로 표현하였으며, 숫자 0은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 가운데에 경농 이를 담아 새롭게 재도약하는 경농의 미래와 비전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젠타, 역병·노균병 전문 「래버스」 출시

신젠타 코리아(주)가 올해 역병·노균병 전문 살균제인 「래버스」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래버스 액상수화제」는 신젠타가 개발한 새로운 살균제 원제 성분인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를 세계 최초로 등록, 판매하는 제품으로 고추, 감

# 아리스타, 신임사장에 '山上茂治' 씨 취임

**아**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 코리아(주) 신임 대표이사에 야마가미시게하루(山上茂治)씨가 취임했다. 한정길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지난 1월 8일 취임한 식을 가진 山上茂治사장은 1950년 1월생으로 1972년 니찌멘 작물보호(농약부문) 분야에 입사, 81년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농약 및 화학 비료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표 역임한 후 1999년에는 (주)해삼 창업 초대 대표이사를 거쳐 2001년 아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 코리아(주)에 합류, 지난해 서울사무소장을 역임한바 있다.

주요 경력을 보면 △1950년 1월생 △1972년 니찌멘 본사 입사 △1982년 폴란드 바르샤바 대표 역임 △1987 화학 농약부 과장(동유



립 및 아시아에서 주로 살충제 전문 비즈니스 담당) △작물보호화학부서 차장 △1997년 농약부장 △1999년 (주)해삼 창업 초대 대표이사 △2001년 아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 코리아(주) 합류 △2006년 아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 코리아(주) 서울사무장

자, 토마토, 인삼 등의 역병과 포도, 배추 등의 노균병 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약제이다.



원제의 독특한 활성으로 인하여, 적은 함량의 유효 성분으로도 충분한 효력을 지니며, 뿌린 즉시 잎 표면이나 줄기 등에 강하게 부착하여 신속하게 왁스 층으로 이동하므로 비가 잦은 장마철 역병 방제에 특히 좋다. 또한 왁스 층에 보존된 유효성분이 지속적으로 잎 전반에 스며들어 약효지속기간이 길며, 추가 병 발생을 강하게 억제한다. 또한 고추, 포도 등의 적용작물 및 환경에 안전하여 유용 곤충에 대한 해가 없어 종합적 병해충방제프로그램(IPM)에도 매우 적합하다.

## 동부한농, 지점 통합 후 사무실 옮겨

동부한농이 지난해 12월 14일 강원지역인 강릉 지점과 원주지점을 통합, 원주지점으로 지점명을 바꾸고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번에 옮긴 사무실의 주소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6-2번이다.

## 인사

- 한국작물보호협회 <승진> △시험부 조성필부장  
△시험부 이재학 차장 △홍보부 박지영 대리
- (주)동부한농 <승진> △작물보호사업부 정밀사업팀장 황정선 상무 <보직변경> △구미공장장 겸 인천공장장 김덕환 상무
- 성보화학(주) <승진>△영업부 이수영 부장 △생산부 이승용 차장